

베이징올림픽 D-50...금메달 향한 투혼



오는 8월 8일 개막하는 2008 베이징올림픽 'D-50'(19일)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태릉선수촌에서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로프를 잡고 오르는 체력훈련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국은 총 28개 종목 30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톱10 수성'을 목표로 잡았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사이클 올림픽 출전권 1장 더 얻었다

한국 사이클이 2008 베이징 올림픽 트랙 사이클 출전권 1장을 뒤통에 얻었다. 대한사이클연맹은 18일 UCI(국제사이클연맹)로부터 여자 포인트 레이스 종목 출전권 1장 추가 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4월 국제연맹 랭킹에 따라 마감된 올림픽 트랙 종목 국가별 쿼터에서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지만 출전권을 따낸 국가들 가운데 종목당 제한 인원 규정에 걸린 국가가 나오며 따라 추가 출전이 가능해졌다. 한국은 이에 따라 남녀 개인도로에서 3명과 여자 포인트레이스 등 모두 4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게 됐다.

조선대 박영식 해머던지기 금 아시아주니어육상

박영식(조선대 1년)이 제13회 아시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해머던지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영식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대회 해머던지기에서 65.03m를 던져 2위 타지키스탄의 알시예르 에스베코브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유소연



김하늘

'지존' 없는 국내 그린 내가 정상 앉아볼까?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한국 무대를 비운 사이 신에 유소연(18·하이마트)과 김하늘(20·코오롱)이 상금 랭킹 선두 추격전에 나섰다. 시즌 4승을 챙긴 신지애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3개 대회를 건너 뛴다.

김하늘은 신지애 다음으로 가장 많은 2승을 올리며 상금 랭킹(1억3천800만원)과 대상 포인트(76점)에서 3위를 달리고 있다. 평균 타수에서도 71.84타로 3위를 차지하는 안정된 경기를 펼치고 있어 이번 스타투어 2차 대회가 다승왕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신지애 US여자오픈 준비위해

KLPGA 투어 3개 대회 불참

유소연·김하늘 등 우승 노려

올해 우승은 없지만 언제든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안선주(21·하이마트)도 신지애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 4승으로 멀찌감치 달아난 신지애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20일부터 사흘간 부산 해운대골프장(파72.6천522야드)에서 열리는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 대회 우승이 필요하다. 신지애가 상금과 다승, 대상 순위를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선수는 김하늘과 유소연.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하며 슈퍼 루키로 떠오른 유소연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유소연은 1억4천200만원으로 상금 랭킹 2위, 대상 포인트 81점으로 2위에 올라 있다. 아직 신지애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두 선수지만 스타투어 2차 대회부터 이어지는 3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신지애의 아성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Xsports와 J골프가 오우 1시부터 4시까지 전 라운드를 생중계한다.

이예라 Wimbledon 테니스 탈락

한국 여자테니스 선수로는 가장 높은 순위인 205위에 올라있는 이예라(21·한솔제지)가 Wimbledon 단식 예선 1회전 벽을 넘지 못했다. 이예라는 18일(한국시간) 영국 로햄튼의 더 뱅크오브잉글랜드 스포츠클럽에서 열린 Wimbledon 여자단식 예선 1회전에서 아나스타샤 야키모바(131위·벨로루시)에 1-2(1-6 6-4 2-6)로 져 탈락했다. 한국계 미국인 케빈 김(185위)은 남자단식 예선 2회전에서 알렉스 보고몰로프 주니어(232위·미국)를 2-0(6-4 7-6(5))으로 물리치고 3회전에 올랐다. 로버트 켄트릭(126위·미국)과 맞붙는 케빈 김은 2승을 더 해야 본선 1회전에 나가게 된다.

프로배구도 '우리' 구단 탄생 초읽기

프로배구계에도 '우리'라는 명칭을 가진 구단이 탄생한다. 현재 프로스포츠계에서 '우리'라는 브랜드가 들어가는 구단은 야구의 '우리 히어로즈'와 여자 농구의 '우리은행 한세 농구단' 등 2개. 지난달 한국배구연맹(KOVO) 신임 총재로 추대된 이동호 대우자동차판매(주) 사장 겸 우리캐피탈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열린 KOVO 임시총회에 참석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생 프로구단 창

단은 우리캐피탈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우리캐피탈은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주는 등 할부금융업을 하는 회사다. 대우자동차(주) 사장으로 널리 알려진 이 사장이 신생구단 창설을 약속하면서 애초 지난 80년대 프로축구 대우로얄즈 이후 명맥이 끊겼던 '대우' 브랜드의 프로스포츠 구단이 창설될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할부금융업체의 이름이 프로배구단 이름에 사

'우리캐피탈'서 팀 창단 야구·농구 이어 3번째

용되는 것. 프로야구단 '우리 히어로즈'는 담배를 판매하는 우리담배(주)가 메인 스폰서를 맡고 있고 '우리은행 한세 농구단'은 우리은행이 창당한 팀이다. 이에 따라 남자 프로배구단 6개와 여자 프로배구단 5개 중 구단을 운영하는 금융업체는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LIG손해보험(이상 남자), 흥국생명(여자) 등 기존 4개에다 우리캐피탈까지 합류하면서 총 5곳에 달하게 됐다.



- 19일(목)
- 2008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 : 클로라도) (09 : 55·XSPORTS)
- 2008 SBS 코리아투어 에이스 저축은행 몽베르 오픈 1R(13 : 00·SBS골프)

- 2008 피스컵(호주 : 브라질)(14 : 00·MBC ESPN)
- KBS배 육상선수권대회(14 : 10·KBS 1)
- 회장기 전국 실업볼링대회(15 : 00·MBC)
- 2010 남아공월드컵 남미예선(브라질 : 아르헨티나)(14 : 20·KBS2)
- 2008 삼성과브 프로야구(LG : KIA) (18 : 00·KBS N SPORTS)(SK : 두산) (18 : 10·SBS스포츠)(롯데 : 한화)(18 : 20·XSPORTS)(삼성 : 우리)(18 : 30·MBC ESPN)
- 20일(금)
- 2008 PGA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1R (04 : 00·SBS스포츠·SBS골프)
- 2008 메이저리그(시카고 : 탬파베이) (08 : 00·XSPORTS)

'뇌 종양 수술' 최홍만 연내 K-1 복귀 시사



뇌수술을 받은 최홍만(28·사진)이 올해 안에 종합격투기 K-1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홍만은 18일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후반기에 다시 링에 컴백"이라는 글을 메인 화면에 올렸다.

수술 이후 K-1에 복귀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최홍만이 자신의 향후 계획을 직접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최홍만은 수술을 무사히 마친 뒤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홍만은 또 홈페이지에 "난 아직 20대, 할 수 있을 때 많겠 도전해보고 싶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 없다"면서 젊은 나이를 강조했다.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Big Support' (작은만남 큰 기쁨) featuring a grid of 48 business listings. Each listing includes the business name, addres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businesses range from food and beverage services to professional and technical services.